

통속과 예술의 상간(相姦)

김 찬 동 · 전시기획자 | 본원 총괄협력팀장



최정화, 〈어머니〉, 오브제,
FRP, 설치장면, 1998

'90

년대 한국사회의 급속한 산업자본주의에로의 전이과정에서 빚어진 전통문화와 현대성과의 충돌은 정보화를 통한 후기산업사회로 진입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미술의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모더니즘 미학이 가지는 미술내적 문제에 대한 질문이나 이데올로기적 질문으로부터도 다소간 자유스러워지며 일상으로부터 촉발된 문제들이 시각예술의 영역을 무한대로 확산시켜버렸다.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성(聖)과 속(俗)의 혼재, 예술장르간의 경계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후기현대사회적 양상의 대두로 초래된 다양한 가치관의 혼용은 더 이상의 어떠한 제도적 관습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최정화는 이러한 한국 여건 속에서 가장 자유롭게 실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작가 중 하나이며 문화적 테러리스트이기도 하다. 작가이기를 거부하며 성과 속, 영과 육, 물질과 정신, 내용과 형식의 경계를 혼돈케 하는 그의 코드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설치미술에서부터 인테리어 디자인, 뿐만 아니라 영화의 예술감독 및 세트디자인 · 그래픽 · 편집 디자인에 이르는 광범위한 활동 영역은 이른바 '최정화 스타일'이 문화적인 상징성을 획득했음을 입증한다. 그가 제시하는 작품들은 늘 도발적이다. 그는 산업사회가 양산해놓은 기성품들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물신화된 산업사회를 비판하며 제도로서의 미술을 조롱하며 일탈의 자유하기를 즐긴다.

그의 전략은 '속' 되고 자질구레한 산업사회 일상의 물건들을 '성' 스럽게 보여주는 것이다. 발가벗긴 재료들을 날것인 채로 갖다 붙이고, 휘황찬란한 상들리에나 알전구 아래 드러난 벌건 살들을 태연자약하게 들이대는데도 그의 공간은 이상하게도 해방구와도 같은 통쾌함으로 다가온다. 대중 문화의 현장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고급 지향, 혹은 위장된 교양과 점잖음 대신 최정화가 우리 앞에 내놓은 것은 조잡스러운 키치로 대표되는 직설적인 일상의 흔적과 외설스러움,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재료의 날(生) 감각, 물성(物性) 등이다.

그의 작품 <어머니>는 대량생산과 대량복제로 상징되는 산업사회에서의 나타나는 성(sexuality)과 사랑(love)에 대한 인식문제와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의 어머니는 출산과 사랑, 희생과 포용이라는 개념과 상관성을 가지며 '사랑' 역시 지고의 가치를 가진 관념으로 인식된다. 최정화에 의해 제기된 어머니와 사랑의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 현대문명적 여건 하에서 직면하게되는 생경함으로 표상화되고 있다. 보살 이미지의 마네킹과 섹스 숭에서 구입가능한 일회용 섹스의 도구인 마네킹으로 형상화된 어머니의 이미지는 전통과 현대, 성과 속, 아가페적 사랑과 에로스적 사랑의 이중 구조의 충돌로 형상화된다. 다른 한편으로 성(性)과 사랑에 대한 다양한 현대적 담론의 상징이 되고 있기도 하다. 주술적 대상으로 다산(多産)과 기복을 상징하는 무녀(巫女)의 형상으로 상징화되는 전통적 가치체계와 일회용 섹스의 도구이기도한 마네킹으로 상징화된 산업화되고 기계화된, 현대의 물질적 체계를 표상하는 두 오브제의 만남은 작품의 명제와 무관한 또는 명제에 도달시키기 위한 무수한 상상력과 복합적 의미망을 창출한다. 전통적 소재와 현대적 소재,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속성들의 충돌을 통해 그는 관습과 변화된 시대의 인식의 충돌을 의도하고 있다. 통속과 예술의 상간(相姦)을 통해 사랑의 결핍과 불임으로 상징화되는 일탈되고 왜곡된 우리시대의 성과 사랑의 풍속도와 그 문화에 대해 조롱하고 있다. 